

## 동아시아 전통과 현대미술의 관계 및 과제

이강소 (2020.1.28)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정세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던 변화와 사뭇 다른 쪽으로 급변하는 상황이다. 지난 30여년간 경제 성장률이 10%를 상회하던 중국이 2019년에는 6.1%에 머물고 금년에는 더욱 하향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21세기 중반이면 세계 패권을 아시아의 중국이 미국과 겨루는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고, 잠자는 호랑이로 비유되기도 했던 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미국의 견제가 강력해지면서 근본적으로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 미국, 국제정세 분석가)은 그의 저서(100년 후, 손민중 역, 김영사, 2010)에서 “나는 중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계속 통일국가로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고 2020년을 예상하며 종이 호랑이 중국으로 평가했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이 1980년대에 대단한 경제 성장으로 “일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매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 성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일본은 엄청난 금융위기에 직면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은 현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21세기에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내가 볼 때 한국은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약 7,000만 명으로 일본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국이며 통일 이후 2030년이 되면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세력을 넓히는 바람에 중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예견한다.

그는 또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홍지수 역, 김앤김복스, 2020)에서,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1914~1945) 동안 약 1억명의 유럽인들이 전쟁, 집단학살, 숙청, 의도적으로 야기한 기아 등 정치적 이유로 사망했다고 하며, 근대 400여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의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구조로 형성해 온 유럽에서 이루어진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 그리고는 “유럽은 더 이상 국제체제나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다. 31년은 유럽 바깥에 유럽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힘입은 유럽각국은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경쟁적으로 영토와 부를 착취해 가면서 축적해 왔던 것이다. 19세기 말엽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쇠국정책으로 서구와 접촉하지 않는 봉건 국가들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1840년의 1차 아편전쟁, 1860년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서구의 종속적인 시장, 식민지적인 처지로 변했다. 1853년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동인도 함대가 나타나 일본정부의 개항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봉건제도 성격의 후진적인 막번 체제를 뒤집은 메이지 유신 정부는 구미 근대국가를 모델로 오늘날의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한국 역시 이 시기에 봉건국가로서 쇠국정책을 고집하고 있었으나 강화도를 통한 끊임없는 구미 함선들과의

도발과 충돌, 급기야 1876년 강화도 측량을 구실로 전투를 벌인 일본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어 일본 및 서구국가에 개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1910년 일제의 침략을 받고 한일 합방조약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국권을 상실한 나라로 연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3국이 과거 수천 여 년에 걸친 전통적인 사상의 발전에 힘써 왔던 세계가 갑작스러운 개항으로 인해 서구 근대문명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세나라는 1세기가 넘는 근대서구 문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중국은 1949년 이래 90년대의 개혁 개방을 표방할 때까지,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의 배타적인 고립정책을 지켜 왔었고, 한국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야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구 근대문명의 영향을 가장 우호적으로 받던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의 참전으로 1945년 패망에 이르렀으나, 연이은 한국 동란으로 인해 한국은 더욱 피해를 입고, 이 전쟁을 기회로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변신한다.

이러한 혼란들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진리와 자유를 갈망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은 각자 혹은 그룹을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적 예술형식에 관한 실험들을 시작하게 된다. 1960년대 초 일본 도쿄에서 하이 레드 센터(Hi-Red Center)라는 이름으로 젊은 작가들이 비예술적이고 반예술적인 행위예술들을 발표했다. 1955~1972년에는 구타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50여명의 작가들이 기존의 예술형식을 타파하는 회화 및 행위, 그리고 오브제나 환경적인 요소들과 결합된 미술을 추구했다. 1960년대 말~1970년대에 걸쳐 '모노하'라는 일본 특유의 미술경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서구 문화충격에 의해 자신의 예술형식을 구현할 때에는 의도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관련의 촉발과 함께 자신의 창의력이 발동하게 되는 것 같다. 1차 세계 대전중인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어나 1924년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반 이성, 반 도덕, 반 예술을 표방했던 다다이즘(Dadaism),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또 미국의 일종의 장소적 미니멀리즘 등은 일본 젊은 작가들의 삶의 정서와 창의적인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동된 것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한일 합병 이후 일본식 서구 근대 교육을 받거나, 일본 유학으로 서구 근대 미술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있었고, 현대미술경향으로는 역시 1960년대 앵포르멜, 액션페인팅 등 한국전쟁의 세대들이 서구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함께하면서 한국의 미술계를 휩쓸기도 했다. 그러면서 60년대 말 반예술, 반도덕, 반전통적인 작품들의 발표회가 있었고, 이후 구미, 특히 급변하고 있는 미국미술의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한편 서방과 정치적 체제를 달리한 중국은 1976년 문화혁명이 끝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85 미술운동'의 예술가들은 서방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위력을 내세워 반아카데미즘의 기치를 올렸다. (중국현대미술사, 가오밍루 지음, 이주현 옮김, 미진사, 2009) 1990년대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나가 있던 작가들이 귀국하면서 미술계는 활기를 띄었고, 재능 있는 작가의 수도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 예술 시장이 보여준 '정치적 팝 아트'와 '냉소적 사실주의'에 대한 환호는 예술가와 비평가들의 자본주의 시장 조작 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와중에서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었다. 새로운 사회환경 등 현대물리학의 발전으로, 기존의 근대적인 사고가 적용하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서구의 발전에는 종교적 전통사상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주체에게로, 하늘로 향하던 시

선이 자신이 밟고 있는 지상으로의 변화를 주장하며 근대 물리학의 큰 발전에 기여했던 합리주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프랑스, 1596~1650)와 아이작 뉴턴(1642~1727, 물리학자, 천문학자)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하기 그지없다. 만약 누가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 만물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별 거부감 없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관습들의 변화를 새로운 진리로 향하여 재빨리 지속적으로 바뀌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를 변화시켜 온 중심에는 근대물리학과 그에 따른 철학, 그리고 20세기의 거시물리학과 미시물리학의 급격한 발전이 있어 왔다.

나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들과 고대의 현인들의 놀라운 혜안과 그들의 존재에 무한한 놀라움과 존경으로 흠모하고 있다. 다음 몇 마디 책의 인용으로 우리들의 새로운 세계를 엿보고자 한다.

카를로 로벨리(이론 물리학자.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 김정훈 옮김. 쌤앤파커스 간, 2018)는 희랍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B.C.460~B.C.360)가 우주 전체는 끝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무수한 원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공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없이 다양한 세계도 기본적인 원자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연계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우리도 우연한 조합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위 "원자 가설"의 결정적 증명은 2300여년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9세기 중반 마이클 페러데이(1791~1867)와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1831~1879)은 세계가 더 이상 공간 속의 입자들만이 아니라, 공간 속의 입자들과 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 낸 것이라면서, 세계는 달라졌습니다"라고 강조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로, 즉 시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주의 모든 대상은 자신만의 흐름을 갖고 있으며, 그 흐름은 국지적인 중력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로벨리는 "140억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고려하게 되면, 우주가 한없이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수축하는 우주는 어떤 한 점으로 내려앉지 않고 되튀어(big bounce) 마치 우주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팽창하기 시작합니다"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론적일 뿐, 빅뱅 너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살아 있는 체계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형성하며 외부세계와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체계입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사람이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데모크리토스의 연구자 살로몬 루리아(Salomon Luria, 1891~1964)의 해석을 빌면---- "인간의 본질은 신체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결 망에 의해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킵니다"고 했다.

20세기 이후 현대 물리학의 시대에도 관습적으로 당연시했던 '나의 존재'는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교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리츨프 카프라(Fritjof Capra,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김용정, 이성범 역, 범양사, 2006, P.40)는 "데카르트의 저 유명한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은 서양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 유기체로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동일시하게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적인 분할의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육체 속에 내재하는 고립된 자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인간의 내적 분열은 곧 '외부' 세계를 제

각기 분열된 대상과 사건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연 환경은 제각기 다른 이해집단에 의해 착취되는 따로 떨어진 부분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 ---- 과학이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분열을 극복하고 초기 그리스와 동양철학에 표명된 전일의 이데아로 다시금 이끌리고 있다는 것은 흥미 진진한 일이다. 기계적인 서양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동양의 세계관은 '유기적인' 것이다."고 했다. 그는 라다크리슈난(Radhakrishnan, S., 1888~1975, 前인도대통령)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이 절대적인 유전(流轉)속에서의 변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눈이 연속적인 사건들을 보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절단된 부분을 만들고 그것을 사물이라 부르는 것은 인위적인 태도다. ---- 우리가 사물들의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의 끊임없는 연속에서 떼 내어진 소산물들을 마치 영원하고 실재적인 것인 양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생은 사물도 아니요, 사물의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움직임이요, 변화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근대 서구 근대화론으로 치달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있지만, 또한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내면적인 전통의 관습과 의도적인 수련을 통해서 가치 있는 자신을 '유기적인' 사고의 수행자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